

순수 자체개발 기술로 22개국 수출길 열어

인위적 인원조정보다 인재 재생산 주력

전쟁터에서 허물어졌던 국가경제를 70~80년대를 지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일으켜 낸, 이른바 산업역군들이 IMF라는 커다란 파도에 사회 뒷전으로 밀려버린 지난 98년은 그 시간 속에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렵기만 했던 한 해였다.



▲ 최청운 대표이사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숨통을 트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천리안을 가지고 적절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발빠른 수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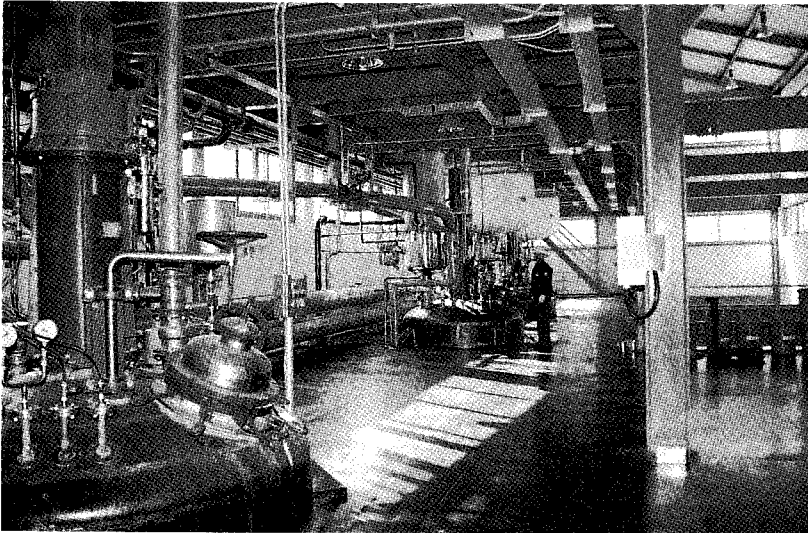
로 확보에 앞선 걸음을 밟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지난 해 50주년을 맞이한 (주)동양잉크 역시 IMF 이전 국내 잉크업계 사상 초유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세계 22개국에 32개 거래처를 확보, 어렵기만 했던 잉크업계에서 부동의 선두자리를 고수한 천리안을 가진 업체이다.

1948년 3월, 인쇄업체가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동양인쇄잉크공업사로 출발한 (주)동양잉크는 56년 유성평판잉크, 골판지잉크, 금속분잉크의 개발을 시작으로 합성수지 및 수지형(광택)잉크 등 신기술 개발을 통



▲ (주)동양잉크의 공장 전경



◀ 최첨단 설비로 최상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주)동양잉크의 제2 수지공장 자동화 라인

해 국내 잉크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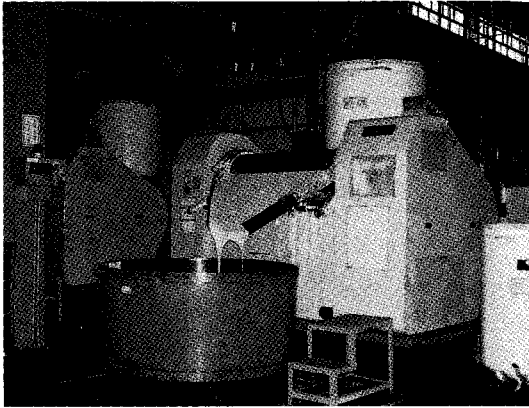
“저희 동양잉크는 기술제휴나 합작없이 국내 순수 자본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최청운 사장의 말처럼 (주)동양잉크는 최신 설비로 무장한 부설 중앙연구소에 20여명의 연구원을 두는 한편, 기술투자비를 높게 책정,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지금의 틀을 빚어왔다.

물론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좌절 없이 이를 자산 삼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 성장을 거듭한 (주)동양잉크는 그간 제1공장에서 생산해 온 읍셋매엽잉크, 읍셋매엽특수잉크, 자외선경화잉크, 읍셋윤전잉크, 플렉소잉크 등의 잉크제품과 인쇄보조제 등의 생산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이거니와 다들 감감하다고만 했던 지난 98년 9월에는 평택공단 내에 대지 2천1백평에 건평 4백38평 규모의 제2공장을 건설, 인쇄잉크용 수지를 생산하게 되므로써 잉크 회사로서의 완성도를 더했다.

(주)동양잉크가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창립당시부터 이어져 온 (주)동양잉크의 전략임과 동시에, 엔지니어 출신인 최 사장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주)동양잉크의 다양한 생산품목들은 인쇄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반영구적 칼라를 유지시켜 준다는 장점을 기초로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고 있다. 또한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첨단인 생산설비와 공장 자동화 및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생산 체제의 구축에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므로써 국내는 물론,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생산라인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이 중 지난 98년 9월 준공된 제2공장의 경우 전라인의 자동화는 물론 컴퓨터로 중앙통제가 가능해 인건비의 절감효과와 작업의 효율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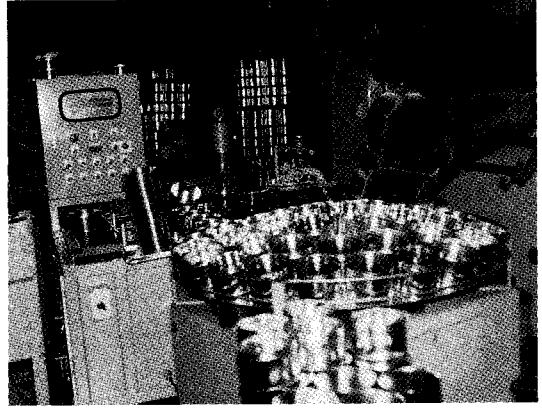
▲ (주)동양잉크 제1공장의 잉크생산 현장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4단계의 라인을 거치는 수지생산 공정은 전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속도는 물론 로스방지면에서도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최대명 차장은 (주)동양잉크의 제 2공장의 설비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도 결코 뒤처짐이 없음을 자신했다.

99년부터는 이 제 2공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지 생산에까지 그 영역을 넓힐 차비를 갖추고 있는 (주)동양잉크는 현재 2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최 사장은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우리 동양잉크의 기술에 의해 질이 향상된 제품으로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라며 지난 80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세계적인 잉크생산업체로의 초석다지기에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꾸준한 수출 증진에 대한 노력으로 94년에는 5백만불 수출의 탑을, 95년에는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던 (주)동양잉크는 현재 필리핀에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 동양잉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크 자동포장기라인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한편, 폼페이에서는 기술제휴를 통한 커미션을 받는 등 제품은 물론 기술수출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출을 시작할 무렵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영어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하는 최 사장은 이러한 노력이 바이어들과의 만남 속에서 각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졌다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섬세한 준비과정을 통해 이룬 성과물을 이야기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적인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음종욱 상무의 이야기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주)동양잉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원조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수학 회장을 비롯해 최청운 사장님, 최대광 전무님 등 어렵기만 할 것 같은 임원들이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융화하고, 임원실이 항시 개방되어 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의견

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는 음 상무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주)동양인크에서는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지난 98년에도(주)동양인크는 인위적인 감원없이 자체적인 수용을 고수해 왔는데 “저희 동양인크는 창립 당시부터 전략적인 인원감축이 없었기 때문에 학력이나 기술력 등 실력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그러다보면 현재 있는 인원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는데 마음을 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동양인크는 대내외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최 사장의 말에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이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정서를 잃지 않은 넉넉한 기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동양인크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즉 사원재교육은 최근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 컴퓨터 교육은 물론, 직급별 교육과 전문·소양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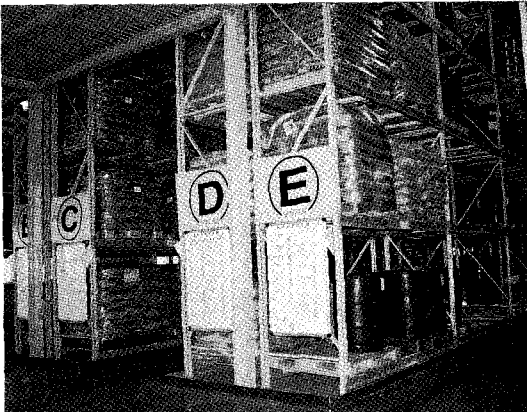
육 등 체계적인 자체 실무교육과 함께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함으로써 일반적인 사원교육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월 1회씩 진행되는 교육은 직원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교육과정에서 전 과정의 업무를 파악하므로써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최대광 전무이사는 교육 초반에는 업무에 교육까지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던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력 재생산에 대한 효과에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창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동양인크인에 대한 변함없는 관리는 아직도 직접 실무전선에서 직원들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공장 곳곳에서 쉬없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최 사장의 경영방침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업무 진척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통해 사무실과 현장의 근무환경을 균등하게 개선해 감은 물론이거니와 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전체적인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수출판로 개척에 몰두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수출부문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수출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 10% 수출력 증진 하겠다는 (주)동양인크의 희망이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 온 그들만의 노하우로 견고한 모습으로 재생산될 것임을 확신한다. ☐

윤지은 기자



▲ 최신식으로 지어진 동양인크의 자재창고